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www.103skcc.org

< 미사 및 성사안내 >

주일 미사
토요 저녁 오후 7:00
주일 오전 7:30
(영어) 격주 오전 9:30
오후 11:00

평일 미사
화,수,목 오전 9:30
금 오후 7:30
십자가의 길 오후 7시
신심미사 첫 토요일 오전 9:30

고해성사 미사 전후

병자성사 간급연락처

(310) 218-8432 (신부님)

(310) 218-8282 (수녀님)

출입성사 6개월 전 신청

유아세례 1개월 전 신청

병자영성체 물매, 낮짜 수요일

— 본당 연락처 —

대표전화: 310-326-4350

주일신부: 문승식 모세 (106)

전교수녀: 박묘숙 프란시스스 (102)

종신부제: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 637-9000

평협회장: 한석주 아모스 담

연령회: (310) 569-3940

빈센시오회 (323) 833-6436

— 사무실 (월, 화 휴무) —

☎ (310) 326-4350 Ext.100

— 사무실 업무시간안내 —

주 일 : 8:00 ~ 5:00

월, 화 : 휴 무

수요일 : 9:30~12:30, 13:30~19:30

목요일 : 9:00~12:30, 13:30~19:00

금요일 : 9:00~13:00, 달글

토요일 : 9:30~12:30, 13:30~19:00

▶ 사무실 방문 시 사전 연락 요망.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www.103skcc.org

email : 103skccusa@gmail.com

복음묵상

오늘 제1독서인 아브라함과 이사야의 이야기에서,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순종이 강조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치게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백 살에 아들 이사악을 낳았고, 창세기에서 이사악을 지칭할 때 사용된 “아이”(창세 22:5,12)는 아기가 아닌 10대의 소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백 살이 넘는 노인이 힘으로 10대 청소년을 제압하여 제단에 끌어 놓을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사악의 순종도 함께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는 복음에서 다시 언급됩니다. 바로 하느님 아버지와 그분의 와이드님이신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느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로 명확하게 인급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자 아들을 불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뜻과 의지로 당신의 외아들을 기꺼이 희생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럼 이사악을 보겠습니다. 이사악은 기꺼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을 따랐지만,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사악을 뛰어넘는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 속에서 수난의 길,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는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당신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당신을 신뢰하시는 아버지를 신뢰하시는 깊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 변모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면서도 무력을 느꼈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신뢰하시며 사랑 받으시는 아드님으로 좁고 협한 길을 가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결심의 시기가 바로 사순 시기입니다.

- 박형순 바오로 신부 -

전례봉사자

이번주	토요미사	마침미사	낮미사	다음주	토요미사	마침미사	낮미사
-----	------	------	-----	-----	------	------	-----

해설자	유지아 풀라마	박은혜 풀라우디아	남성철 네네이도	해설자	조병준 풀로렌시오	미민상 묘한	정광미 프란체스카
-----	------------	--------------	-------------	-----	--------------	-----------	--------------

목사	최희정 보나	이민상 요한	김혜원 아네스	목사	송인선 안젤라	김금자 데레사	정민숙 아우스팅
----	-----------	-----------	------------	----	------------	------------	-------------

그때에 구름에 앉아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마크 9,17)

홀로 차운을 찾고 있는 바위 위로 마스라이 수령전이 보입니다. 바위의 당황함이 마치 하느님의 권능을 보는 듯합니다. 세상 어느 한 곳 하느님의 사랑이 끊지 않은 곳이 있음을 믿기에, 날선 바다에서 만난 산비로운 풍광 속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라는 하느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주님 말씀만 따르며 살겠노라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 이복희 릴다 | 가톨릭사진가회 -

본당 설립 40주년 감사

목주기도 봉헌합계

40만단 목표 <금 주 40,002단>

금 주 실천 합계: 14,407단 .

누적 합계: 28,483단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미사헌금 / 209명	\$ 1,721.00
교무금	\$ 7,010.00
매일미사 관례	\$ 408.00
성전헌금	\$ 3,390.00
감사헌금	\$ 200.00
한길선례	\$ 12,729.00

교무금 내신 분

장미순	강인모	고현용	김교복
김민식	김성백	김영미	김원모
배태임	서용숙	성미선	신순월
양정선	윤희동	이영우	이성구
이정자	정동규	정충로	최재은
김명숙	한길선례		

성전헌금 내신 분

장미순	강인모	고현용	김교복
김민식	김영미	김원모	성미선
배태임	서용숙	성미선	신순월
양정선	윤희동	이영우	이성구
정동규	정충로	최재은	한길선례

김지훈 대건 안드레아

부제를 위한 영적 예물

백삼위 성당 첫 사제 서품 대상 김지훈 대건 안드레아 부제님의 수품 축하와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공동체의 정성을 모아 영적 선물을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